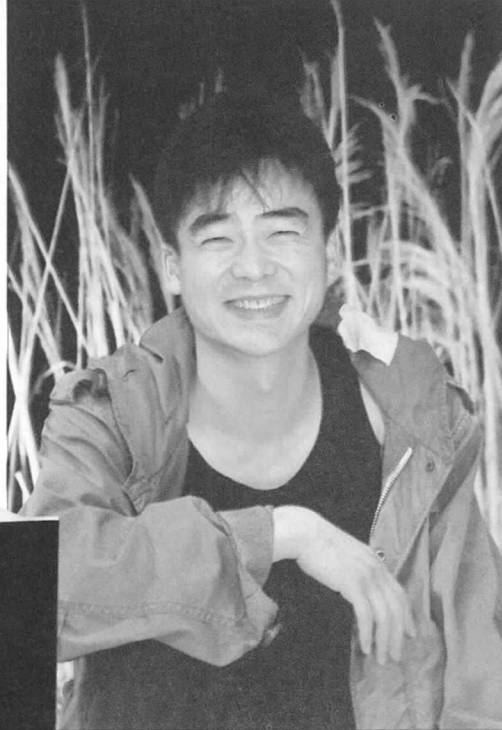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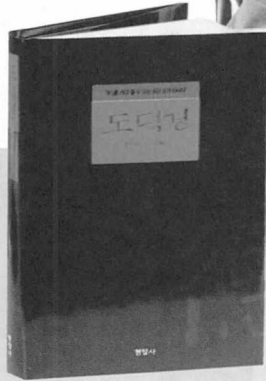


# 삶의 본질에 육박하는 깨우침

연극연출가 김경익씨가 뽑은  
노자의 《도덕경》



《도덕경》을 대할 때마다 복서를 떠올려요. 링 위에 선 복서가 잠깐 휴식하다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듯 뒤로 살짝 물러났다가 전세를 기다리며 다시 뛰어드는 거죠.”

연극연출가 김경익씨(34)는 여섯살 때 병명조차 없던 혈액질환에 걸려 몇번씩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었다. 그 즈음 방송사에서는 김씨를 살리자는 모금운동까지 벌였다. 그래서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 ‘덤’으로 얻은 제2의 삶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고 있다. 그의 열정은 책으로도 향해 있다. 서가에서 뽑은 노자의 《도덕경》(오강남, 현암사)은 그의 삶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다.

“대학교 1학년 때 《도덕경》을 처음 읽었어요. 지하철에서 읽을 만한 책이 없을까 하고 형의 책장을 뒤적이다 발견했죠. 그런데 첫장부터 충격적이었어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다’는 글귀를 읽는 순간부터 《도덕경》에 빠져들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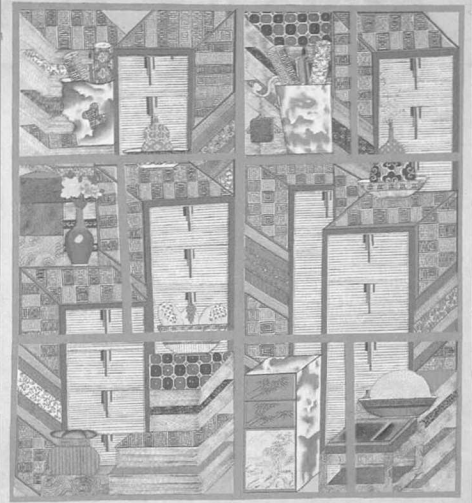
그는 이 책에서 자연의 무한한 생명력을 배웠다. 특히 휘어짐에 빳대 올곧음을 역설한 22장을 좋아한다. 이 부분은 《장자》에 나오는 나무이야기와 맥이 통하는데, 그는 기능적 측면만 증명하는 현대사회의 물성이 생명의 본질을 흐린다고 말한다.

“노자의 중심사상인 무위자연은 현실도피, 혹은 세상과의 단절이나 은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 내가 하나되는 자연스러운 생명력을 강조하는 거죠. 자연의 순수논리를 표현하는 도(道)는 인간을 주체로 하거나 현상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벼랑 끝에 선 굽은 나무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가장 치열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삶의 본질이 아닐까요.”

그는 지방공연을 다닐 때도 언제나 《도덕경》은 빠뜨리지 않는다. 자신이 단지 편리함과 효율성에만 빠져 그 뒤에 가려진 본질을 바라보지 못할 때면 언제나 책장을 펼치기 때문이다. 그는 이 책에서 생존전략을 배우기도 한다.

“《도덕경》을 대할 때마다 복서를 떠올려요. 링 위에 선 복서가 잠깐 휴식하다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듯 뒤로 살짝 물러났다가 전세를 기다리며 다시 뛰어드는 거죠.”

그가 연극과 인연을 맺은 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던 1994년 1월부터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을 찾고 싶었다. 그때 연극이 떠올랐고, 무작정 연기자 시험을 봤다. 그는 이렇듯 ‘겉없이’ 연극무대에 뛰어들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생존을 위해 ‘투쟁’해왔다. 그 덕분에 1996년엔 중견배우들도 힘들다는 햄릿역에 최연소로 캐스팅되기도 했다. 지금은 주목받는 신예 연출가로 대학로에서 〈봄날은 간다〉를 선보이고 있다. - 박옥순 기자



© 2000. Um, Mi Keum

책가도(冊架圖)는 책과 서가, 그리고  
일상 용구들을 함께 그린  
우리 겨레그림(민화)의 일종이다.  
일명 서가도(書架圖)·문방도(文房圖)·책탁문  
방도(冊卓文房圖)로 불리기도 하며,  
‘책거리 그림’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거리’란 복수(複數)를 뜻하는  
우리말 접미사이다.  
문인 취향이 물씬 풍기는  
이 그림은 주로 선비들의 사랑방을 장식하였다.  
이 그림은 특히  
구성과 색채의 표현기법이 뛰어나며,  
역원근법을 시도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이것은 사람이 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책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처리된 예이며,  
이는 책의 주체를 숭상한 우리 조상들의  
정신세계를 밝혀주는 자료이다.

출판사 사장들께 묻고 싶소.  
당신들은 왜 책을 만드시나요?

연락주십시오.  
e - mail / wanja3533@hanmail.net